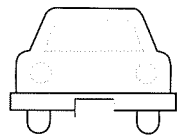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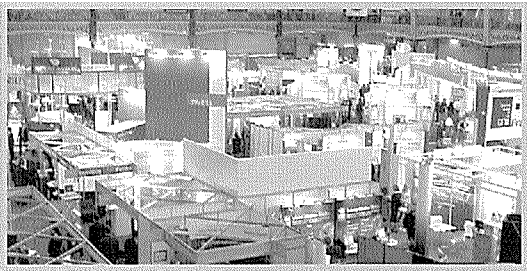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회 참관 및
유럽국립도서관 견학
한국과학기술정보개발팀 _신용주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회 참관 및 유럽국립도서관 견학

머리말

해외 정보서비스 분야별 현황과 신기술 정보를 획득하여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자질 향상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해외 교육훈련 파견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 2가지 측면으로 해외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회를 참관하여 유럽의 분야별 정보서비스 현황과 새로운 솔루션 및 시장현황 등을 파악하고 전자저널 출판사들과 전자저널 서비스 관련 데이터 협조 및 서비스 방향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국내 전자저널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립도서관인 British Library와 BNF(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Francois Mitterrand)을 견학하여 유럽지역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여 도서관 정보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와 한국과학기술원의 후원으로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까지 7일간 영국 런던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회 관람과 영국국립도서관과 프랑스국립도서관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 영국 런던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장 전경

영국 런던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회' 참관

영국 런던 Olympia Grand Hall에서 2004년 11월30일(화)부터 12월 2일(목)까지 3일간 개최하는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회를 11월 30일과 12월 2일 양일간 참관하였다.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회의 행사내용은 ① 콘텐츠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 및 기관들이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하면서 컨퍼런스도 동시에 개최하여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② 전문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전문가의 역할, 콘텐츠 매니지먼트(CM)관련 솔루션, 모바일 관련 솔루션 등 정보서비스를 세분화, 전문화하여 각 분야별로 소개하였다.

Online Information 2004 전시회 참가대상은 정보전문가, IT전문가, 마케팅전문가, 출판업자 등 이고, 전시회에는 총 12개 분야 41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1,000여개의 콘텐츠 자원 및 정보 관리 솔루션을 전시하고 있다.

본 전시회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리정보, 법률, 과학, 의료, 지리정보, 화학 등 실생활에 접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여 정보 활용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전시회 참관 평가를 정리해보면 전시회 규모는 비교적 작았으나 유럽의 핵심 업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시한 콘텐츠 자원 및 정보 관리 솔루션 등에 대해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는 유익한 정보 획득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특히 과학, 기술, 의학 분야의 정보콘텐츠 제공 및 관리 솔루션이 두드러져진 점을 볼 수 있었다.

단지, 유럽국가 위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었기에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획득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또한 전시회 참가를 기본 목적으로 일정을 정하였기에 국제 포럼 및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신기술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 획득의 기회는 얻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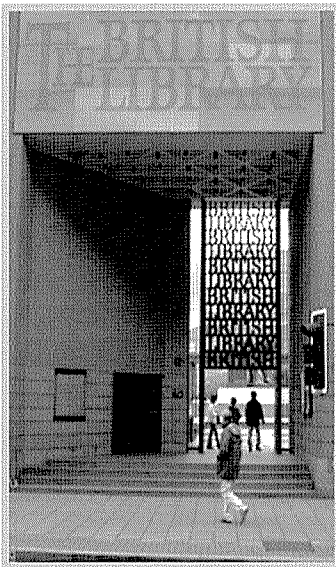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견학

영국국립도서관은 1753년경 대영박물관이 설립될 때 <도서부>로 출발했고, 1972년에 <대영박물관도서관>으로 독립하였으며, 분산되어 있는 6개의 국립도서관을 통합과 서고 공간 부족 해소,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71년 설립이 제안되어 St. Pancras 지역에 정부 기금으로 신축하여 1982년부터 서비스 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국립도서관은 정보자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의 보존기관, 도서관 상호대차를 위한 중앙기구, 목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기관, 도서관 및 정보과학분야 조사위원자금의 주된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의 규모는 총 서가 길이 300km, 장서수 1억 2천만, 11개의 열람실, 1000여명의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Information desk 옆에 현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도서관 이용방법, 각 자료실에 대한 설명이 적힌 팸플릿 등을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국국립중앙도서관 배치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도서관 2층부터 3층까지의 중앙부분을 King's Library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국립도서관의 이용자 봉사 현황은 이용시간이 월~금 09:30~20:00, 토요일 09:30~17:00, 휴관일은 매주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학자, 전문가, 대학원생 이상이고 운영방식은 폐가제 및 반개가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 자료실은 주제별로 Reading Ro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용 reader's pass를 발급 받아 이용해야 한다. Reading Room 이용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인 경우 연령대별과 기관의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 이용료를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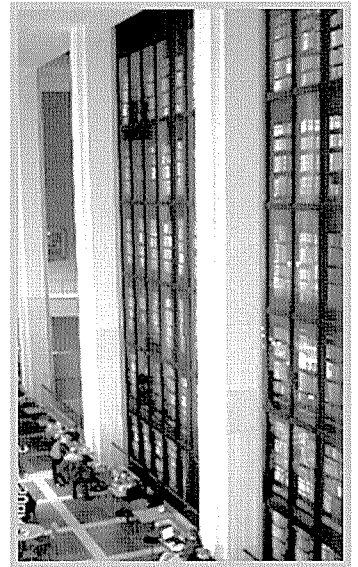
① 영국국립도서관 정문



② 영국국립도서관 입구



③ Information Desk



④ King's Library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견학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4~5개 도서관 건물로 구성되며, 소장도서와 자료에 따라 각각 그 특성을 지닌다. 그중에서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전 대통령의 추진으로 건립되었기에 프랑수아 미테랑 도서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였다.

파리 동남쪽 세느(Seine) 강가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은 펼쳐진 책을 상징하는 L자형인 79m 높이의 대형 타워 4개가 유리 건물들로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은 지하실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시간탑, 법률탑, 문자탑, 숫자탑이라고도 불리우며, 이것은 건물별로 주제(인류학, 법/정치학, 문학, 과학)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세느강가에 위치한 프랑스국립도서관 전경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설립배경과 연혁을 살펴보면, 프랑스국립도서관은 1368년 샤를 5세가 개인 서고를 루브르의 성(城)으로 옮겨 온데서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당시 917권의 도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1537년에는 왕의 명령으로 프랑스 내에서 인쇄되는 모든 저작물은 블로아(Blois)성에 있는 왕실도서관으로 납본해야 한다는 제도가 성립되어 납본제도가 시작되기도 하였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이 가장 왕성하게 번성했던 시기는 루이 14세(1643-1715)때 이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책이 증가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왕실도서관 사서였던 니콜라스 크레망(Nicolas Clement)은 알파벳 글자를 기본으로 23개의 구분으로 된 분류체계를 세웠다. 처음 4자까지는 종교, 다음 2자는 법률, 10자는 역사, 4자는 철학·과학, 3자는 문학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자료를 관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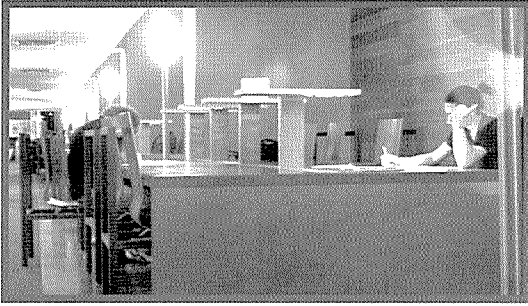
1850년 건축가 앙리 라브루스트(Henri Labrouste)의 감독아래 도서관 건물이 새로 건축되었으며, 19세기 말엽에는 중세연구가인 레오폴드 델리슬(Leopold Delisle)의 지도하에 도서관이 운영되고 전세계 모든 학자에게 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1988년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파리로심 리슐리외(Richelieu)가에 있는 도서관이 너무 넓고 협소하여 도서관의 신축을 결정하였으며, 1989년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1992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총12억 유로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건립하였다. 1994년 11월 연구자들을 위한 2000석의 자리와 도서와 자료 50만권을 갖춘 도서관의 일부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으며, 1996년 12월,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 (la bibliothèque d'étude du François-Mitterrand)이 개방되었고, 1998년 10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관(la bibliothèque de recherche)이 최종 개방되었다.

새로 건축된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1200만권의 장서, 총 서가 길이 450km, 열람석 3500석을 자랑하며, 열람석은 연구자와 일반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열람실은 지하 1, 2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100만명 정도 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유료 pass(카드)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주로 학생과 학자, 연구원 등 전문분야 종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주보는 4개의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지하정원은 전면이 유리로 된 도서관의 벽과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도서관열람실내부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가 예약한 본인의 자리를 갖고 있으며 인체공학설계의자(의자 하나의 가격이 80만원정도),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개인 스탠드가 있으며, 각 자료실마다 3~4명의 사서가 대기하고 있으며 도서 및 자료검색을 도와준다. 자료실은 이용자로서 하여금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하였으며 공간의 여백을 많이 두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의 휴게실과 각 홀로 연결되는 복도는 유리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4개의 타워 중앙에 있는 푸른 숲 정원을 바라 볼 수 있어서 휴식처와 같은 안락한 느낄 수 있었다. 중앙홀에 위치한 안내데스크, 도서관 정보가 들어 있는 팸플릿 비치대, 상담 창구 등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정보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인체공학 설계의자 및 열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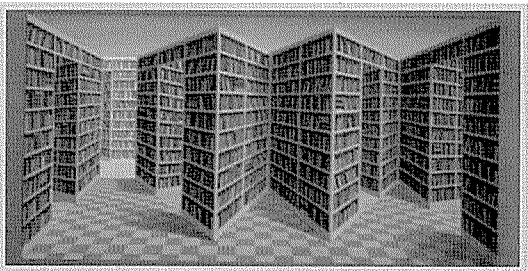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이용자 봉사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시간은 월~금 10:00~20:00, 토~일 10:00~19:00이며, 휴관은 9월에 15일 휴관하고 성탄절과 각종 기념일 및 혁명일에 휴과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방식은 폐가제 및 개가제를 자료실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모든 이용자에 유료 Pass(카드)제도 적용하여 1일 3유로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연간 이용 회원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료는 일반의 경우 30 유로, 15세 이하 학생은 연간 15유로 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디지털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인쇄본과 영상물에 대해서 디지털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100,000개의 디지털화된 이미지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웹사이트는 1996년에 초기 버전이 출시되었으며, 1천 5백만의 서지사항을 포함한 BN-OPALINE 데이터베이스 포함하여, 도서관의 인쇄물, 음성데이터 및 영상물들을 포함한 대략 8백만개의 전체 도서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인 Gallica(<http://gallica.bnf.fr>)를 통해 중세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정치, 경제, 법률, 철학, 문학, 과학, 역사, 민속학 등이 총망라된 디지털 장서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끝맺음말

이번 해외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이론적인 측면의 정보서비스 전문가 자질 향상 보다는 해외 정보서비스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5박 7일간의 일정 중 마지막 방문지인 프랑스국립도서관 견학을 마치면서 2가지 측면으로 해외교육훈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신기술의 이론을 획득할 수 있는 워크샵을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업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시회 참관과 도서관 견학을 통해 해외 정보서비스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사고의 전환이라는 키워드 이다. 영국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그림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평면속의 입체라고 명명한 아래 그림처럼 바라보는 자의 시각과 움직임에 따라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림이다. 도서관의 많은 업무 중에서도 일상속에서 안주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이를 탈피할 수 있는 의지의 키가 될 수 있는 그림을 발견한 것이었다.



☉ 평면속의 입체